

##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라

사도신경 .....  
찬 송 ..... 569장 .....

다함께  
다함께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 도 .....  
성경봉독 ..... 요한복음 10:1~7 .....

말은이  
다함께

<sup>1</sup>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며 강도요 <sup>2</sup>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sup>3</sup>문지기  
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sup>4</sup>자기 양  
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  
로 따라오되 <sup>5</sup>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  
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sup>6</sup>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sup>7</sup>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라

2025. 9. 28. 주일예배 설교

##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인생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기왕이면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처럼 강하고 세상을 제압하는 존재로 불리고 싶지, 양으로 불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은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은 지구상 동물 중 생존에 가장 취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약한 양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양에게는 악한 면도 있습니다. 고집이 매우 세서, 한 번 갔던 길로만 다녀서 땅에 굴이 다 파일 정도가 되고, 먹던 풀은 또 그 풀만 먹어서 뿌리까지 삼켜버릴 정도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이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 53:6), 양의 악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약하고 악한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29)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양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의 이중 속성, 즉 하나님이 없는 자신은 양처럼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바닥을 보고, 자신의 유약함과 모순을 경험하며, 스스로 곤고한 존재임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살려낼 ‘목자’ 를 찾아 나섭니다.

※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며,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양이 목자를 따르는 방법”

---

그렇게 양이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에게는 한 가지 훌륭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오직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의리’입니다. 양은 스스로 약하고 악하기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삶의 바른 지침으로 이끌어 줄 더 강력한 존재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기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를까요? ‘음성’으로 자기 목자를 알아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4절). 그럴 때에, 양의 ‘고집’은 목자를 향한 ‘정절’로 승화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타인의 음성’이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약속한다 해도, 양은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음성도 아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음성이 아님을 알기에, 따르지 않고 도망해 버립니다.

※ 목자를 만난 양은 의리와 정절을 지키며,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릅니다.

##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

여러분은 양으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론적 사유’를 포기하고 세상 정치인처럼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이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간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7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말해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자는 주님께서 “절도며 강도” (1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론

양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이리 때로 가득한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양의 고집스러운 의리를 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문 앞에서 양의 출입을 지키고, 자는 동안에도 지켜줍니다. 목자의 사랑과 양의 의리가 만날 때 양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목자를 신뢰한 양을 죽음 저편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안전하게 지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우리의 목자이시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말씀 나눔

- ① 양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p.2). 그것이 무엇인지 답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양(Lamb)’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약, 악)

“하나님 없는 나(그리스도인)는 양처럼 ( ◯ )하고 ( ◯ )하다.”

- ②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일 상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타인(자신)의 음성’ (p.3)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예) 정치인의 화려한 언변, 권력자의 달콤한 말,  
철학자의 지혜, 풍요를 약속하는 맘몬이즘의 속삭임 등

- ③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사는 것’이 약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덕분에,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실천해보고 싶은)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또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